

모든 미스터리는 애저사로부터 시작됐다

범죄의 여왕

애저사 크리스티 이야기

루시 위즐리 지음, 홍한별 옮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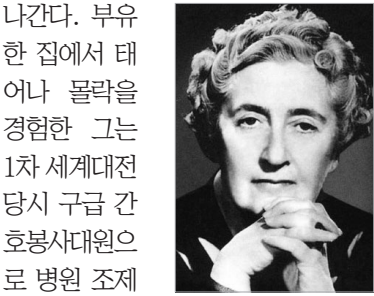


추리 소설을 즐겨 읽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최애’ 작가와 주인공이 있다. 코난 도일과 셜록 홈즈라든지, 사촌 두명의 필명이자 소설 속 명탐정 이름이기도 한 엘리러 퀸이라든지. 푸아르 탐정과 미스 마플을 탄생시킨 애저사 크리스티(사진) 역시 수많은 추종자를 거느린 작가다. ‘세익스피어와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작가’로 불리는 그의 작품은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 연극으로 만들어져 지금도 전 세계인을 사로잡고 있다. 그의 작품을 접하다 보면 흥미로운 캐릭터와 기발한 트릭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 궁금증이인다. 더불어 소설보다 더 소설 같은 실종 사건 등 그를 둘러싼 이야기까지 더해지면 ‘애저사 월드’를 탐험하고 싶어진다.

대영제국 훈장을 받은 역사가이자 방송인 루시 위즐리의 ‘범죄의 여왕 애저사 크리스티 이야기-모든 미스터리는 그녀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추리의 여왕’ 애저사의 삶과 작품에 대한 모든 것을 다룬 책으로 애저사 사후 50년 기념으로 출간돼 의미를 더한다.

책을 읽다보면 저자가 애저사의 ‘팬’ 이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의 수많은 작품은 물론이고 생존 인물들의 인터뷰와 신문기사, 크리스티 기록보관소 자료까지 살살이 훑으며 애저사의 모든 것을 들려주는 저자는 애저사의 실제 삶과 생각이 작품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쏙쏙 뽑아서 알려준다. 여기에 애저사 전작 읽기를 할 정도로 ‘전덕후’인 홍한별 번역가가 합류해 독자들에게 ‘신비한 인물을 이해하는 핵심적인 열쇠’를 제공한다.

저자는 그의 일생을 천천히 따라가며 이야기를 풀어



나간다.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 몰락을 경험한 그는 1차 세계대전 당시 구급 간호봉사대원으로 병원 조제실에서 근무하며 독극물에 대한 지식을 얻고 ‘탐정소설’을 쓰겠다고 생각한다. 1921년 발표한 데뷔작 ‘스타일스 저택의 괴사건’에서 살해 방식으로 독약을 사용하고 자신의 경험을 담은 여자 약제사를 등장시키며 꿈을 현실화시킨다.

데뷔작에는 그와 평생을 같이 할 인물이 등장한다. 달걀모양의 머리에 우스꽝스러운 콧수염을 기른 벨기에 이민자 출신으로 “똑똑하고, 신체적으로는 어설피고, 의외로 기발한” 탐정 에킬 푸아르다. 그리고 또 한명의 본신. 애저사가 가장 좋아하는 인물로, 마을의 터줏대감인 독신 여성 제인 마플 역시 1930년작 ‘목사관의 살인’을 통해 모습을 드러낸다.

역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1926년의 실종 사건이다. 첫 남편이 자신을 떠나려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는 갑자기 사라지고 며칠 후 사고를 당해 망가진 차량에서 그의 소지품이 발견되자 경찰은 대대적인 수색작전에 나선다. 결국 한 호텔에서 기억상실증에 걸린채 발견되지만 남편에게 살인혐의를 씌워 복수하기 위한 자작극이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켰고 이 꼬리표는 그의 사후에도 계속된다. 저자는 다양한 자료조사를 통해 오해를 풀어내는데, 11일간의 실종은 어쨌든 “모든 작품에 흔적을 남길 정도로 강력한 사건”이었다.

열 네살 연하의 두번째 남편인 고고학자 맥스 맬로윈의 만남은 그의 고고학에 대한 관심을 더욱 깊게 해주



애저사 크리스티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 ‘오리엔트 특급 살인’ (2017)의 한 장면. /©20세기 폭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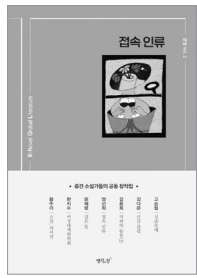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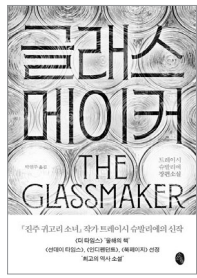
었고 남편과 함께 한 여행과 발굴 작업은 그의 작품에도 영향을 미쳤다.

각각의 작품에 대한 이야기도 흥미롭다. 오리엔트 특급 열차를 타고 가던 중 홍수로 기차가 이를 동안 멈춰서 있던 일에서 영감을 얻은 ‘오리엔트 특급 살인’, 탐정소설 역사상 가장 뛰어난 작품 중 한 편으로 꼽히는 ‘애크로이드 살인 사건’, 수많은 국가에서 영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변주된 최고 인기작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초연된 런던 극장에서 여전한 상연 중인 ‘죄짓’ 등이다. 또 “내 삶을 조금 그 안에 넣기 위해” 메리 웨스트트래프터라는 필명으로 쓴 ‘봄에 나는 없었다’ 등의 작품도 소개한다.

저자는 더불어 그의 작품에 등장하는 인종적·계급적 견해에 대한 불편한 시선도 함께 언급하고 여성학자들에 의해 재평가한 애저사가 복원되는 과정도 소개한다. 그는 말한다. “애저사 크리스티는 정말로 자신의 이야기를 스스로 써 내려간 여성”이었다고. <위즈덤하우스·3만원> /김미은 기자 mekim@

새로 나온 책

▲글래스메이커(트레이시 슈발리에 지음, 박현주 옮김)= ‘진주 귀고리 소녀’의 작가 트레이시 슈발리에가 베네치아 무라노섬의 유리공예를 배경으로 여성 장인의 삶과 시간을 그려낸 장편소설이다. 남성 만 허용된 공방의 관습에 저항하며 구슬 공예를 익힌 오르솔라의 삶을 통해 전쟁과 전염병, 산업의 흥망 속에서도 이어지는 예술과 가족, 사랑의 의미를 묻는다. <소소의책·2만1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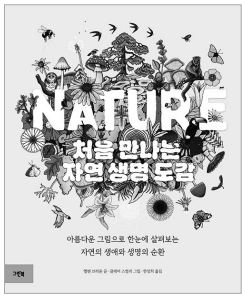
▲여성의 몸에 대한 의학의 배신(엘리자베스 코멘 지음, 김희정 외 옮김)=서구 의학이 여성의 몸을 어떻게 오해하고 축소해 왔는지를 임상 사례와 의학사를 통해 추적한 교양 의학서다. 뉴욕대 랑곤 헬스 소속 종양내과 전문의 엘리자베스 코멘은 유방암 환자들의 진료 경험에서 출발해 여성의 고통이 ‘기분 탓’이나 ‘심리 문제’로 치부돼 온 구조적 편향을 짚는다. 심장질환·폐암·코로나19 백신 부작용 등 구체적 사례를 통해 의료 시스템의 기준이 누구를 중심으로 만들어졌는지를 묻는다. <생각의힘·2만6000원>

▲접속 인류(고승철 외 지음)=중견 소설가 모임 ‘큰글(KNGL)’이 선보이는 두 번째 공동 창작집. 고승철 등 7명의 작가가 참여해 꿈과 좌절, 관계와 생존을 둘러싼 오늘날의 삶을 각기 다른 시선으로 그려낸다. 고사·신춘문예 낭인, 접속 사회의

인간관계, 주거 수용의 부조리까지 동시대의 고민을 문학적으로 풀어낸다. <생각의창·1만6000원>

▲약이 듣는 이유를 과학으로 쉽게 설명했다(아마구치 사토루 지음, 신찬 옮김)=해결집통제부터 항생제, 항암제까지 우리가 먹는 약이 몸속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화학과 생명과학의 언어로 풀어냈다. 약이 흡수되고 단백질과 결합해 효능을 내기까지의 과정을 따라가며 열과 통증의 원리, 항생제와 항바이러스제의 차이 등 일상적 궁금증에 과학적으로 답한다. <더숲·2만2000원>

어린이·청소년 책



▲어린이 탐구 생활(이다 지음)=일러스 트레이터 이다가 연재한 만화 ‘나는 어땠더라?’와 에세이를 엮어 펴냈다. 작가는 자신의 어린 시절 기억과 오늘날의 어린이를 교차시키며 ‘○린이’라는 표현을 비롯해 우리가 무심코 써 온 말과 태도를 되돌아본다. 외교, 정치, 기후 위기까지 다양한 주제를 날카로운 유머와 다정한 시선으로 풀어내며 어린이를 하나의 인격체로 바라보는 어른의 책임을 묻는다. <창비·1만6800원>

▲NATURE 처음 만나는 자연 생명도 감(헬렌 브라운 지음, 클레어 스컬리 그림, 한성희 옮김)=나무와 잎, 꽃과 씨앗, 버섯과 계절까지 자연의 변화를 ‘순환’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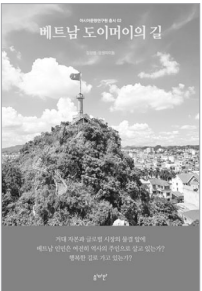
라는 시선으로 풀어낸 논픽션 그림책이다. 정교하고 아름다운 일러스트를 통해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잎이 떨어져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자연의 생애를 한눈에 보여준다. <그린북·2만2000원>

▲토끼 아저씨네 엄청나게 매운 카레(큐라이스 지음, 황진희 옮김)=숲속에 있는 토끼 아저씨의 카레 가게에는 유난히 매운 카레를 먹으러 손님들이 찾아온다. 고양이, 양, 문어, 유령까지 누구나 ‘맵다!’고 외치지만 이상하게도 모두 끝까지 먹고는 한결 가벼워진 얼굴로 돌아간다. 큐라이스 특유의 엉뚱한 상상력과 유머 속에 도전과 내려놓음의 의미를 따뜻하게 담았다. <길벗어린이·1만4000원>

베트남을 이해하는 길잡이 책 나와

베트남 도이머이의 길

김성범 외 지음



출퇴근길 오토바이 행렬이 장관인 나라로, 월남이라는 나라로 알려져 있기도 한다. 프랑스와 미국의 침략을 받을 만큼 외세의 침탈이 많았으며 우리처럼 남북으로 나뉘어 비극을 경험하기도 했다. 바로 베트남이다. 베트남은 ‘열고도 가까운’ 나라이기도 하다. 경제 교류가 활발해지고 다낭 등 관광지가 각광을 받으면서 베트남은 더 이상 낯선 국가가 아니다. 베트남 현지에서 생활하고 연구하며 베트남이라는 나라를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고 이를 책으로 엮어낸 이가 있다. 아시아문명연구원 대표인 김성범 통일철학연구회 선임연구원이 주인공이다. 김 대표와 웅원파이

동 베트남사회과학 한림원 철학원장이 공동으로 ‘베트남 도이머이의 길’을 발간했다.

지난 2025년은 베트남의 8월혁명(1945년)이 발발한 80년이 되던 해였다. 1945년 8월 17일에 베트남 제국인 응우옌 왕조를 전복시킨 혁명이다. “독립-자유-행복”이라는 베트남 혁명 구호가 지금 다시 울려 퍼지고 있다. 이제 베트남은 실험의 단계를 넘어서 자신의 독자적 노선을 가고자 한다. 호치민 사상을 토대로 본격적인 도약의 시대로 넘어가려는 길, 그것이 바로 도이머이의 길이다.

베트남어인 도이머이는 “아초 아래로부터의 인민의 요구, 현실 문제에 대한 개혁적인 당 지도부의 반응과 수용, 그리고 소통의 과정에서 만들어진 길”을 뜻한다. 이 같은 개념은 다양한 현실 상황을 각계각층에서 반영해 1986년 공식화됐다.

김성범 대표는 “지금도 여전히 도이머이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며 “거대 자본과 글로벌 시장이라는 물결 앞

에 베트남 인민은 여전히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이번 책이 비롯됐다고 언급했다.

1978년 4월에 일어난 바츨 마을의 비극에서 시작한 이야기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호치민을 불러오고, 1945년 ‘8월혁명’을 거쳐 전쟁이 끝이지 않았던 근현대사를 두루 살핀다. 책의 후반부에서는 베트남사회과학원원 철학원장 웅원파이동이 베트남으로 들어온 외래 사상들이 ‘어떻게 베트남화’가 되어 갔는지 설명한다.

책은 모두 7장으로 구성돼 있다. 1장 ‘이어지는 고난’을 비롯해 2장 ‘호치민, 30년 만의 귀환’, 3장 ‘분단과 전쟁에서 다시 분단으로’, 4장 ‘남부와 쩌다오’, 5장 ‘회고-프랑스의 침략과 저항’, 6장 ‘도이머이의 길’, 7장 ‘베트남 사상에서 외래 사상의 베트남화’ 등이다. 아시아문명연구원 두 번째 총서로 발간된 책은 베트남을 이해하는 데 길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심미안·2만원> /박성천 기자 skypark@

‘한국의 갯벌’은 세계자연유산

- 유 산 명 : 「한국의 갯벌」 (Getbol, Korean Tidal Flats)
- 등재기준 : (x) 생물다양성 및 멸종위기종의 서식지
- 등재년도 : 2021년
- 유산면적

명칭	한계 (km²)	유산지역 (km²)	완충구역 (km²)
총면적(km²)	2,030.03	1,284.11	745.92
서천 갯벌	104.66	68.09	36.57
고창 갯벌	74.11	55.31	18.80
신안 갯벌	1,773.40	1,100.86	672.54
보성-순천 갯벌	77.86	59.85	18.01

※ 유산지역 면적은 서문시(605.24km²)의 약 2배, 전체 연안습지보호지역(1,497.24km²)의 약86%, 국가연안습지(2,482.00km²)의 약52%를 차지

탁월한 보편적 가치 (OUV)

지구 생물 다양성의 보존을 위해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의미있는 서식지 중의 하나이며, 특히 멸종위기 철새의 기착지로써 가치가 크므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로부터 인정

‘한국의 갯벌’이 가진 독보적인 특징

- 생물종 다양성을 높여주는 깊은 산소층
- 갯벌 주변에 섬과 산이 보이는 수직적 경관



수평선만 보이는 북대서양 연안의 외연해 갯벌

산과 섬에 둘러싸인 절경을 보이는 한국의 갯벌

다양한 형태의 아름다운 갯벌 경관

갯벌 위에 새겨진 기하학적 모양의 조수로



자연이 선물한 아름다운 조수로



갯벌 위의 수채화



새들의 휴식적인 사취와 알만사취지



갯벌 위에 춤추는 무희, 사취



전 세계에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특이타지



갯벌로 다른 행성을 보여주는 혼합갯벌 속의 모래갯벌

한국의 갯벌 VR프로그램

한국 갯벌의 생태를 VR로 만나보세요! 철새이동, 먹이활동, 서식굴, 쾨롱어 싸움, 염농, 염생식물, 오염된 갯벌 구출까지 7가지 콘텐츠로 갯벌의 생명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철새이동



철새의 먹이활동



서식굴



쾨롱어 영역싸움



갯벌의 청소부 업렁개



염생식물의 역할

“생생한 현장, 함께한 순간들”
아이들의 눈빛이 반짝이는 생태 탐험 수업 현장!

